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홈페이지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골별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 안 내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초등부 대성전) 19:00	
			06:30 (새 벽) 10:30 (교 중)	
			10:3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21:00 (찬양미사)	
	평일	새벽 6:30 / 저녁 7시 (목) 오전 10시		
예비자교리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사무실 문의			

2020년 본당 사목 목표 : 1. (세례 받고 파견된 이들)“선교사가 됩시다.” 2.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시간

8/14(금) 19:00 | 8/15(토) 06:30, 10:30, 19:00



8월 15일은 원죄 없으신 하느님의 어머니 이시고 평생 동정하신 성모마리아께서 지상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영혼과 육신이 함께 승천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로마 전례력에 있어 가장 큰 축일 중의 하나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축일입니다.

● 알 림

- 오늘 중·고등부 미사(10:30)는 캠프로 인해 없습니다.
- 고해소 사용
 - 고해소에 환기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 손소독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능한 짧게 본인의 고해만 합니다.
-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사용 안내
 - 성당 입구에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하였습니다.
 - 바코드를 무인 단말기에 접촉(터치)하여 본인 스스로 출입 기록을 합니다.
 - 바코드가 없는 본당 신자는 사무실에서 발급 받습니다.
- 미사 참례시 주의사항
 - 성당 정문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합니다.
 -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은 후, 키오스크에 바코드로 출입을 기록합니다.
 - 바코드가 없는 타본당 신자는 수기로 기록합니다.
 - 손 소독을 하고 입장합니다.
 - “X”라고 써있는 곳은 앉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 받습니다.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개별 예식)

● 새 신자 첫영성체

- 8월 8일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신 새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 명	세례명	구역 반
김관호	베드로	4구역 1반
김은숙	루치아	4구역 1반
김단아	마리스텔라	4구역 1반
김종성	세례자요한	12구역 4반
우연섭	소피아	13구역 2반
김세욱	요 셉	18구역 3반
박성오	토마스아퀴나스	21구역 3반
김시윤	세레나	23구역 2반
이은주	올리비아	23구역 2반
이수민	에스테르	구역 외
안영환	대건안드레아	구역 외
유경민	베드로	구역 외

● 모 임

모 임	일 시	장 소
꾸리아 윌레모임 1Cu.	8/16(주일) 12:00	강 당
2Cu.	8/16(주일) 13:30	강 당
3Cu.	8/16(주일) 13:30	소성전

● 지역별 주일 미사 참례 시간

구 분	새벽미사 6:30	교중미사 10:30	주일 낮 12:00	주일저녁 19:00
8월09일	2지역	3지역	4지역	1지역
8월16일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8월23일	4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
8월30일	3지역	4지역	1지역	2지역
9월06일	2지역	3지역	4지역	1지역

- 구역 외 신자분들은 12시, 저녁 7시 미사에 참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서울 대교구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음주일 (8/16)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11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7월29일 ~ 8월04일)

• 교 무 금		8,610,000 원
• 주일헌금		3,708,050 원
• 사순 저금통		5,075,930 원
• 감사헌금	이병남 5만원 허인옥10만원 김수자10만원 김경희10만원 최기수10만원 익 명 5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복 사	독 서
8/09	박혜선	오성환 김영균 신종구 최상림	최승일 구민서
8/16	유명진	조흥환 이응남 김진수 엄태환	최웅조 정재경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일	06:30	10시 30분	12시	저녁7시	밤9시
8/09	박용환	최석준	김인기 박형순 손상민	박승환	이성일	없음
8/16	장인홍	김인기	박승환 이운영 이계명	최승일	장인홍	없음

● 주보 7면

- 새로 전입 오신 교우를 환영합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 새로 전입 오신 교우를 환영 합니다

구역/반	이 름	세례명	구역/반	이 름	세례명
1구역 1반	양상순	데레사	14구역 2반	윤혜진	안나
1구역 3반	김미희	리디아	14구역 3반	김진이	마리아
4구역 1반	이정순	소화데레사	15구역 1반	방혜선	요셉이나
6구역 1반	김성기	디모테오	15구역 2반	김재홍	안드레아
8구역 3반	김태준	베드로	16구역 3반	장지후	루카
9구역 3반	박용대	요셉	16구역 4반	임종화	안젤라
12구역 4반	김성자	카타리나	17구역 3반	강건영	빈첸시오
13구역 3반	김기화	루시아	19구역 3반	김우암	토마스
14구역 1반	김지연	글라라	22구역 4반	정찬진	야고보

- 구역장, 반장님들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305.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요?

오로지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은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서는 것,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 그분을 추종하는 것은 공적으로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마태5,14-15) 세례와 견진을 받은 우리는 비록 성직자나 수도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복음의 ‘사절’이며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마태 28,19 참조)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우리에게 **성령 칠은**을 내려 주십니다.

306. 그리스도인은 왜 사회 참여를 해야 하나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요한 4,8 참조) 그리고 “사랑은 교회의 사회 교리의 핵심입니다.” (<진리안의 사랑>2항) 그리스도인은 일정한 가치 태도와 신념을 받아들이는 것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와 본질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해야 합니다. ‘가장 작은 사람’ 안에서 그분을 찾고 (마태25,40 참조), 그분을 추종하고, 그분을 닮는 것(토마스 폰 켐펜)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정의에 마음을 크게 두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어린이, 가난한 사람, 병자 등 약자를 향한 자애로운 사랑으로 가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사회적으로 멸시당하는 사람들의 자유와 존엄성을 존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사회적 **아젠다**입니다. 가톨릭 사회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총명한 현존을 체계적으로 전개하는 것일 뿐입니다. 곧 인간이 자신의 본래 존엄성을 재발견하고(인간 존엄성), 탐욕과 죄에서 해방되어 이웃에게 봉사하고(연대성), “성읍의 평화” (예레29,7), 곧 공동체가 평화와 정의 안에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사회를 주시하는 것(공동선)이 큰 목표입니다.

307. 우리가 무엇을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아나요?

현대의 갈등과 사회적 변혁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인용할 수 있는 완벽한 처방 방법으로서 사회 교리서를 교회가 우리 손에 쥐어 준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양심이 더해져야 합니다. 양심의 목소리는 책임 있는 결정을 위한 훌륭한 논증을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자신이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칸트가 지적한 것처럼 양심이 부패할 경우, 우리의 양심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시각에서 보자면, 양심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하느님의 계명과 이 시대의 곤경을 바라보며 형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심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나쁜 것을 위한 쓸모없는 변명만 늘어놓습니다.